

오피니언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정·비·로·알·기

호남 문화

법·판·질·제



조현종

회경루 난간에 기대어

일찍이 중국의 시상 두보(杜甫)는 드넓은 동정호가 내려다보이는 악양루에 올라 우국총성을 눈물로 노래했다. 동악 양루(登岳陽樓)가 그것이다. 서기 769년, 57세의 두보는 의지할 곳 없는 처량한 신세였지만, 전란에 빠진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고통을 걱정하는 시인의 근심은 애틋하기만 하다. 아름다운 경관과 근심 어린 시선을 가진 이 시는 춘망(春望)과 함께 학창시절의 동경이었다. 하지만, 언젠가 악양루에 올라 난간에 기대어 두보를 기억하리라는 생각은 당시로선 무망하였다.

무등산북의 정원(亭園)과 임암한 시편(詩篇)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그 뒤의 일이다. 면양정, 송강정, 소쇄원, 환벽단, 취가정, 독수정, 명우헌 등과 멀리 적벽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누정(樓亭)은 경관뿐 아니라 계산풍류의 산실이다.

소위 무등산가단이라 칭하는 하서 김인후, 소제 양산보, 미암 유희준, 송강 정철과 같은 선비들의 진지한 문학세계가 이곳에서 태동한 것이다. 이를 해서 두보와 악양루에 대한 나의 기억은 희미해져 만갔다.

그러다가 전설 같은 회경루(喜慶樓)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1430년(세종 12년) 광주는 불미한 사건으로 광주목(光州牧)에서 무진군(武珍郡)으로 강등되는 불명예를 경험한다. 그러나 사건의 발단이 애매하여 산전초목은 물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억울함을 품었지만 호소하지 못하다가 20여 년이 지나서야 복권이 이루어진다.

당시 상소의 논의는 주도한 이선제(李先齋) 등은 “임금이 은혜를 내림에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소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터에 하물며 우리 고들의 오랜 억울함을 어찌 그대로 안고 있을 수 있겠소?” 라며 출사표를 던진다. 이에 고을 사람들은 관원들이 함께 사실을 적어 상소하였고 임금의 특명을 받아낸 것이다. 역사는 광주목의 회복이 1451년(문종 원년)의 일로 기록된다.

상소로써 백성의 힘으로 광주목이라는 옛 이름을 다시 찾게 된 것은 고들의 경사인 동시에 분명 잊어버린 자존심의 회복이다. 가슴을 치며 통곡한 세월의 20년, 얼마나 기다린 명예회복인가? 당시 널따란 광복 차일이 둘러진 광주목의 도심에는 명예를 되찾은 고을 사람들을 가득하였으리라. 기꺼움의 어깨동무와 음주 가무는 물론 쉼없이 계속되었으

리라.

그리고 마침 태수 안철석(安哲石)이 옛 공복루(拱北樓)터에 광주를 대표할 누각을 세우게 된다. 고을 사람들은 이를 경축하고 회경으로써 누의 이름을 지어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태수에게 청한다. 이어 태수가 승낙하고 신숙주는 그 유래를 회경루기에 기록한다. 실로 드라마 같은 역사와 기록하며 회경루는 다시 찾은 광주의 상징이자 명예회복의 증거물로 등장한다.

1451년 당시 신숙주는 회경루기에서 누각의 규모가 정면 5칸·측면 4칸이며 장엄함이 동방의 유풍이라 적고 있다. 지금의 남원 광한루나 진주 죽석루, 밀양 양남루와 같은 웅장한 규모인 셈이다. 회경루의 동쪽으로는 큰 길이 있고 서쪽으로는 대숲이 보이며, 북쪽에는 연꽃이 가득한 큰 연못이, 그리고 큰길 건너편의 활터를 언급하는 등 누각의 규모와 그 주변의 풍광을 눈에 선하게 한다.

1536년 심언광은 재건축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새로이 담장과 계단을 단장하고 화려한 단청을 하여 더욱 장엄해진 회경루의 난간에 기대어 바라보는 경관을 상기한다. 예컨대 옆드려 있던 것 이 일어나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며, 먼 것이 가까워지며, 산의 자태와 물빛, 아침

의 반짝임과 저녁의 그림자, 계절의 변천과 삼라만상의 아름다움 등 수려한 경치를 바라볼 수 있다고 했다.

누각은 소실되고 또 중건이 이루어지다 결국 자취를 감추게 되지만, 동국대박물관의 회경루방회도(喜慶樓榜會圖)는 당시의 모습을 오늘에 전한다. 그림은 1567년 회경루에서 있었던 계회장면을 그린 것으로 관아 건물이 회경루와 주변의 경관을 사실적으로 바라본 말하자면 부감투시기법으로 표현했다. 그림의 핵심은 연회가 중심이 되는 기록화지만, 2층으로 된 회경루의 도습과 축대, 담장과 민가, 활터를 비롯한 주위 경관의 묘사를 보면 심언광의 기록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일치한다.

회경루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시민적 공감을 바란다면 광주학의 우선 실천과제로 설정되어도 좋다. 하지만, 이미 박선홍 선생께서는 ‘광주 100년’에서 충장로 광주 우체국 터로 위치를 추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두보의 악양루가 아니라 우리의 회경루에 오를 날을 기다려 볼 일이다. 〈국립광주박물관장·문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를 지극하게 해서 진리의 눈이 뜨이기, 피안의 언덕에 오르기를 기원한다. 그것도 간절히.

어떻게 보면 오래된 사찰이야말로 멈추는 연습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공간이다. 이론 새벽에 등백나무가 듬성듬성한 오솔길을 흘러 거닐다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

천관산 너머로 불붙는 새벽 햇살에 불그스레 얼굴을 물들이는 숲이며 새들의 저저킴에 화답하는 나무의 숨결들, 뺨 위를 서걱거리는 겨울바람의 속삭임, 우주의 모든 것

이 내게 말을 건네는 찰나의 순간, 아름다움이 섬광처럼 찾아든다. 그러면 끝내 고개를 돌리고, 나는 차마 더 이상 산책을 뜻하고 돌아와 방문을 닫는다. 그렇게 내 이론 새벽 산책은 항상 짧게 끝난다.

하지만, 그 여운은 꽤 오래간다. 책을 펼치니 ‘내 최고의 도반스님 일담스님 저자 혜민 두 손 모아’라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무엇을 보낼까? 아무래도 오늘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책을 끝까지 정독해야겠다.

〈백련사 총무스님〉

터 등을 방문해 노후한 시설물을 점검하고 개보수하는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봉사활동은 공사가 그동안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포상금으로 자체를 구입, 공사 자체 기술력을 활용하여 직접 수리·봉사를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깊다고 할 수 있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오는 흑룡의 해다. 저마다 용의 기운으로 험찬 한해의 시작을 알리려는 노력들이 분주하다. 하지만, 언론 매체에서는 지난해보다 국내외 경제가 어려워져 소득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전망을 내놓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이를 때우는 것이 ‘나눔과 봉사’, 즉 사회공헌이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흔히 실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특히 지난해 말 광주지하철의 4대 사령탑으로 취임한 이호준 사장은 취임식과 관련하여 일절 화환을 받지 않는 대신 사랑의 쌀을 기탁받아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나아가 올해 초부터는 푸른 꿈 지역아동센

스 기사의 업무 대기와 배차업무가 대부분 일 걸로 안다. 그렇다면, 승객들의 안전한 운송과 운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 기사님들의 휴식과 휴게시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가 본 시내버스 종점의 그런 시설은 너무 열악하고 부족했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면 운전기사들은 휴식을 취하고 다음 운행을 준비하면서 대기하는 게 기본일 텐데 버스 종점의 환경이 이처럼 꽉막지 못해 버스기사가 불편한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 그것은 승객들의 안전한 탑승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니재필·광주시 서구 벽진동

시·설

위기의 광주·전남 재정 탈출구는 없는가

자치단체의 재정 충실도를 평가하는 전남의 재정력 지수는 4년째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이고, 광주 의 재정력 지수도 6대 광역시 중 가장 열악하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내놓은 금년도 자치단체별 재정력 지수에 따르면 전남(정부 기준)의 재정력 지수는 0.312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광주시 역시 0.562로 꽂혀졌다.

특히 전남의 재정력 지수는 지난해 0.324에서 0.312로, 광주는 0.569에서 0.562로 하락하는 등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력 지수는 1보다 크면 자체 수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광주와 전남도의 자율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전남도내 일선 시·군의 재정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신안군의 재정력 지수는 0.107, 강진 0.115, 장흥 0.124, 고흥 0.131 등 대부분의 재정구조가 ‘マイ’

정부, 레미콘업계 전면파업 방지 안된다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레미콘업체들이 시멘트가격 조정과 건설업체 납품단이 인상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전당, 여수엑스포 마무리공사 등 주요사업 차질은 물론 영세 레미콘업체들의 연쇄 부도까지 우려되고 있다.

광주·전남 99개 업체를 비롯, 전국 900여 레미콘업체들은 예고했던 대로 22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시멘트가격을 조정해주거나, 건설사를 이 납품단과 물을 올려주지 않는 한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쌍용양회·동양시멘트 등 대형 시멘트사들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때문이다. 시멘트 공급사들은 지난해 6월 가격을 t당 5만20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30% 올린데 이어 올 1월 7만7500으로 또 다시 14.8%나 인상했다. 7개월 만에 2만5500원을 올린 셈이다.

대기업의 이런 가격 인상은 종소 레미콘업체들에게 문을 닫으라는 사형선

고와 같았는데 문제는 있다. 골재비 등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에 불과 7개월 만에 가격을 올린 것은 그야말로 횡포나 다름없다.

여기에는 레미콘업계는 시멘트값 인상 분만큼 레미콘가격도 t당 5만6000원에서 6만500원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있지만 꿈쩍도 않고 있다. 대형 시멘트사와 건설사 사이에 끼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파업이라는 최후 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시멘트사, 레미콘업계, 건설사 등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타격을 고려해 상호 협상을 통해 조속히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광주시·전남도도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해결책을 촉구하는 등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적극성을 갖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하며 차제에 이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로마제국의 실권을 장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시자)가 처음으로 단행한 개혁 조치가 달력 개정이었다. 당시 로마에서 사용한 달력을 기원 전 7세기 제2대 왕 누미가 정비한 태음력이었다. 태음력은 1년을 355일로 잡아보니 카이사르가 살던 기원전 1세기 중엽에는 달력과 실제 계절 사이에 3개월 가까운 차이가 생겼다.

카이사르가 달력을 개정에 나선 것은 이 차이를 없애는 것에 도 있지만 나날의 생활을 재는 기구인 달력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문명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집트의 전문화자와 그리스의 수학자를 동원해 지구가 태양을 한바퀴 도는는데 걸리는 시간을 365일 6시간으로 계산했다. 1년마다 생기는 6시간의 오차는 4년에 한번씩 2월 23일과 24일 사이에 하루를 끼워넣어 청산했다. 결국 그해의 2월은 29일이 된다. 오늘로 치면 윤년인 셈이다.

‘율리우스력(曆)’으로 불리는 태양력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카이사르는 태음력과의 오차에서 발생한 3개월을 11월과 12월 사이에 끼워넣어 없앤 뒤 이듬해인 기원 전 45년 1월 1일부터 유틀리우스력의 시행에 들어갔다.

율리우스력은 서기 158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개량할 때까지 서양 세계의 시계를 지배했다. 16세기 전문학의 발달로 공전주기가 365일 6시간이 아니라 365일 5시간48분46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우스력’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11분14초의 오차를 관정하는데 무려 1627년이나 걸린 것을 보면 유틀리우스력의 정확도를 짐작할 만하다.

국민의 상당수가 정교회 신자인 레시아에선 개신교나 가톨릭의 크리스마스(12월 25일)보다 13일 늦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다. 유틀리우스력의 영향력이 지금도 여전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율리는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이고, 음력 3월이 한달 더 있는 윤달이 겹치는 해다. 태양력과 태음력의 오묘한 차이와 조화를 알아 낸 카이사르의 혜안에 새삼 놀라게 된다.

/정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종·고·칼·럼



일 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바라본 바다의 노을이 눈에 선하다. 뉴욕에서 함께 소임을 살 때는 단둘이 센트럴파크로 소풍을 간 적이 있다. 숲을 걷다가 자그마한 벤치에 멈춰서 샌드위치를 먹고 따뜻한 햇살 아래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한 없이 계속될 것 같은 시간이 흐르는 중에 우린 서로의 속마음을 많이 털어놓았다. 친구는 “만약에 간화선 수행이 고타마 삯다르타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난 그 말에 별 대꾸를 하지 않았다.

수행자로서 너무나 당황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선 그 당연한 말이 행동하기는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만큼 인식의 폭이 넓어졌지만 당시에는 그랬다. 인터넷상에서 종종 친구의 이름이 국제 간화선 세미나 발표자로 올라가 있는 것

을 보면서 나는 흘로 남모르는 미소를 짓곤 한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책 속에는 짧지만 깊이 있는 사색과 고뇌의 흔적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쉬운 언어로 수놓아져 있다. 문득 책의 제목처럼 인간이 멈출 수 있을까라는 엉뚱한 망상을 피워본다. 어떻게 보면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물질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죽음도 인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멈춘다는 표현에는 지금 이 순간을 보라

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난 백련사에서 243

일 낮도 텁풀스테이를 하면서 항상

‘지금’이 순간에 집중해서 보고 느끼라’고 주문을 한다. 명상을 할 때뿐만 아니라 산을 오르고 오솔길을 걸으면서 말은 삼가고 이 순간을 보고 느끼는 것에 집중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정말 좋은 인연이 생기면 이 공부

터 등을 방문해 노후한 시설물을 점검하고 개보수하는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봉사활동은 공사가 그동안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포상금으로 자체를 구입, 공사 자체 기술력을 활용하여 직접 수리·봉사를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깊다고 할 수 있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오는 흑룡의 해다. 저마다 용의 기운으로 험찬 한해의 시작을 알리려는 노력들이 분주하다. 하지만, 언론

매체에서는 지난해보다 국내외 경제가 어려워져 소득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전망을 내놓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이를 때우는 것이 ‘나눔과 봉사’, 즉 사회공헌이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흔히 실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